

唯物辨證法(1)

安光泉

—
辨證法은 모든考察에 있어서 歷史的이기를 要求한다. 辨證法 그自體의考察도 歷史的이라야하겠다 「우리가 一般自然에 對하여 人間의 歷史에 對하여 쏘는 우리 自身의 智識的 活動에 對하여 考察할새 우리는 爲先 어느 것을 勿論하고는 同形을 保全하지 아니하며 늘 同處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며 늘 同質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恒常運動하며 變化하며 發生하며 消滅하고 諸種의 關係와 諸種의 反動이 서로서로 錯綜에 連結하는 無始無終의 大畫面을 보게된다. 故로 우리는爲 先이 畫面을 全體로서보고 그 個個의 部分은 多少 間뒤에 밀쳐둔다. 우리는 運動하며 結合하며 相關한 事物을 보는 것보다도 도르혀 그 運動의 推移와 關係를 본다. 이와 가튼世 界觀은 原始的이며 素朴하며 그러나 實質的으로 正確한것이 었나니 그것은 即 古代希臘哲學의 世界觀이다. 當代有名한 哲學者헤라클리터스는 明白하게 論述하여 가라대 「萬物은 存在하며 쏘 存在하지 아니한다. 웨그러냐 하면 萬物은 流動的이니 恒常變化하고 恒常生滅하고 잇스닛가」고.

그러나 이 考察方法은 畫面을 一體로서 그 全般的 性質을 바르게 指示함에는 足하지마는 그 畫面全體를 構成하고 잇는 細目을 說明함에는 不充分하다. 그런데 그 細目を 理解하기 前에는 그 畫面全體에 對하여 明晰한 觀念을 가질 수 업는 것이다』(엔겔스)

『진실로 抽象的 眞理는 업다. 眞理는 恒常具體的이다』(헤-겔)

『於是乎 우리는 이 細目を 理解하기 爲하여 事物을 그 自然의(或은 歷史的의)關係로부터 分離하여 個々別々로 그 性情, 特殊의 原因, 結果, 及其他를 調査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것이 爲先第一로 自然科學과 歷史研究의 課業이였다. ……確實한 自然科學의 基礎는 爲先알렉산드리아의 希臘人, 그것에 이어서는 中世時代의 아라비아 人에 依하여 작만 하여졌다. 그리고 眞正한 自然科學은 十五世紀後年에 始作되어 그 後로 不斷增加의 速力으로써 進

步하였다. 『自然』을 그 個個의 部分으로 分解하는것 各種의 自然的 過程과 自然物을 明確한 種別로 類集하는것 多種多儀의 本物體의 內部解剖의 研究等 이것들이 最近最近四百年間에 成就된 우리 自然智識의 大進歩의 根本條件이었다. 그런데 이 研究法은 그조치 못한 遺産으로서 自然物及自然的 過程을 그 全體의 大關係로부터 分離하여 獨立的으로 觀察하고 習慣을 우리에게 남겨 주었다. 即 自然을 觀察함에 그 運動에 잇서서 하지 아니하고 그 靜止에잇서서 하여 根本적으로 變化하는 것으로 알지 아니하고 常任不變의 것으로 알며 그 生에 잇서서 하지 아니하고 그 死에 잇서서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如斯한 事物의 觀察方法이 쎄-콘과룩크에 依하여 自然科學으로부터 哲學에 옮겨진 쎄 即 前世紀(十八世紀)에 特殊한 形而上學的 狹隘한 思索法이 생겨났다.

形而上學的 哲學者들에 잇서서는 事物과 그 心的 反映인 觀念이서로 分離되어 個個別別로 考慮된것이오. 또 그것이 確定不變의 動할 수 업는 研究의 目的 物이다. 그들은 絶對로 相容할 수 업는 兩極端을 생각한다.....그들에 잇서는 一物은 存在하거나 그러치 아니하면 存在하지 아니한다. 一物이 一物인 同時에 또 他物일수는 업다. 積極과 消極은 絶對로서로 反撥하고 原因과 結果는 嚴正한 對立物이 된다.』(엥겔스)

이것이 十八世紀의 形而上學的 宇宙觀이었다.

如斯한 世界觀은 그것에 相應한 論理學的 思考方法을 形成시켰다. 이 論理學은 三個의 原則을 가지고 잇스니 自同性原則(或은同一律) 矛盾의 原則 (或은 矛盾律)不容間位の 原則(或은 排中律)이 即 그것이다.

第一, 自同性原則은 엇든 概念의 同一한것을 確認하나니 $A=A$ 라고 하는 것이다. 다 明白하게 例를들어 말하면 사람은 사람이다 國家는 國家다. 資本은 資本이다 하는 것이 이 法則이다.

이 自問性原則으로부터 第二의 矛盾原則이 나오게 되나니 이 原則은 A 는 非 A 가 아니라는 것이니 即 第一原則의 消極的 方式을 指示한것에 不過하다. 例를들어 말하면 國家는 國家인 同時에 國家以外的 무엇일 수는 업다는 것이다. 이 原則에 依하면 무엇이든지 그 自體가 矛盾될 수 업는 것이니 實際에 잇서서 쏘는 思想에 잇서서 矛盾이 잇다하면 그것은 偶然이오. 病的이다.

如斯한 思考法으로부터 直接으로 第三의 不容間位の 原則이 나오게 되나니 이 原則에 依하면 서로 反對되는 排他的의 二個의 意見은 同時에 둘 다 虛僞일 수 업다. $A=B$, $A=非B$ 라는 두 命題中에 前者가 眞이라 하면 後者는 必然으로 僞이오. 後者가 眞이라하면 前者가 必然으로 僞이니 이 境遇에 第三의 命題가 成立될 수 업다.

如斯한 三個의 原則으로써 成立된 形式的 論理學은 必然으로 「예-스, 예스
及노-, 노-」의 方式을 取한다.

얼는 생각하면 이 思考方法은 우리의 健全한 常識가치보인다. 『그런데 이
常識은 自家의 四壁內의 領域에 잇서서는 至極히 尊敬할 先生이지마는 한번
學問研究의 大海에 튀어나가는 새에는 곳 놀날만한 猜險을 하게 된다. 故로
形而上學的 思考方法은 若干의 方面에 잇서서는 그 研究題目의 性質에 卞러
서 各々 잇든 程度까지 是認하여야 하겟고 또 必要한것이지마는 문듯 그 制限
點에 到達하여 그 以外에 나갈 새에는 偏見이 되고 短見이 되고 空想이 되
고 풀 수 업는 矛盾에 卞지게 된다. 卽 個々の 事物만의 思索에 醉하여 그
相互間의 關係를 잇(忘)고 事物의 存在만을 생각하여 그 存在의 始終을 잇고
그 靜止만을 생각하여 運動을 잇나니 畢竟나무(木)를 보고 숲(林)을 보지 못
하게 된다』(엔겔스)

三

十九世紀의 初頭以來로 한 新世界觀이 出現하였다. 地球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卞 科學에 依하여 證明된바와 가치 決코 創造된 것이 아시오. 永劫의
넛날로부터 存在하여 온 것이 아시오. 幾千萬年동안 發展하여온 것이며 지금
도 卞 發展過程에 잇다. 그것은 처음에는 瓦斯의 덩어리이엇고 그 다음에는
火球이엇다. 卞 地球우에잇는 모든 事物도 亦그러하다. 卞 自然에 잇서서 그
러한것과 同樣으로 人間의 社會에 잇서서도 모든 것이 進化의 過程에 잇는
것이 明白하게 되엇다. 一切의 것이 生成 發展 消滅의 發展過程에 잇스니 固
定不變의 것은 하나도 업다.

『다시 嚴密하게 研究하여보면 反對物의 兩極(例를들면 積極과 消極과 가튼
것)은 서로 反撥하는 同時에 卞 서로 分離할 수 업는 것이니 그 反撥이 強함
에 不拘하고 卞 서로 錯綜交感하고잇다. 그와 同樣으로 原因과 結果라는 概
念도 다만 個個의 境遇에 適應한새에만 正當하지마는 宇宙全體와의 大關係
에 잇서서 그 個々の 境遇를 생각하는 새에는 兩者는 곳 성겨지고 만다. 卽
우리가 긴히 宇宙의 活動과 그 反動을 考察하는 새에는 原因과 結果는 永久
에 卞하여 交代하나니 이제 이곳에서 結果이든것 이곳 저곳에서 原因이 되
고 卞는 그 反對(卽 이곳에서 原因이든것이 저곳에서 結果가 되는 것)가 出
現하는 것과 가튼 混亂을 보게 된다』(엔겔스)

如斯한것을 說明함에는 十八世紀의 形而上學的 哲學은 無力하여졌다. 이에
宇宙의 進化過程과 一致되는 思考方法이 要望되었나니 十九世紀 以來의 新
獨逸哲學이 卽 그것에 適應하여 나온 것이다.

이 新獨逸哲學은 헤-겔哲學에 이르러 그 頂點에 達하였다. 헤-겔哲學은

一切事物을 그 發展에잇서 々觀察하는 것이니 自然界, 歷史界, 智識界의 全部가 헤-겔에 이르러 비로소 一個의 過程으로서 觀察되게 되었다. 卽 不絶히 運動하는것 不絶히 變化하는것 發展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卽 一切은 運動하는 것이다. 그런데 運動하는것은 同一한 時間에 一定한 場所에 잇는 同時에 또 그 場所에 업게 되는 것이니 그것에 對하여 形式的 論理學『예-스, 예-스及노-, 노-』의 方式으로써는 到底히 解答을 줄 수 업다. 웨그러냐 하면 事物 그 自體에 運動하고 잇는 것이 엇지 할 수 업는 事實이며 事物의 運動은 오즉 그 矛盾, 對立으로써만 說明될 수 잇는 것이다.

『矛盾은 同一과 가치 本質的 內在的 定義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從來의 論理學의 根本的 偏見의 하나이엇고 一般的 前提의 하나이엇다. 事實에 잇서 々는 同一이라는 것은 矛盾에 比하면 다만 直接의 定義 죽은 實在의 定義 인것에 不過하다. 그러나 矛盾은 모든 運動과 生命의 源泉이다. 모든 것은 그 自身속에 矛盾을 包含한 限에서만 運動하고 또 힘과 生命을 가지는 것이다』(헤-겔)

統一物의 分裂과 그 矛盾에 充滿한 構成部分의 認識은……辨證法의 本質 이다』(레-닌)

如斯히 모든 事物의 生成 消滅을 矛盾 對立으로써 說明하는 것이 辨證法의 本質이니 헤-겔은 現在한 事物(그것은 반다시 그 內部에 그 自體의 矛盾을 包藏하고 잇다)을 肯定이라고 하고 그것에 對한 矛盾(或은 反對 對立)을 否定이라고 하엿다. 이 矛盾은 前述한바와 가치 決코 單純한 破壞가 아니니 破壞인 同時에 建設이며 消滅인 同時에 生成이니 그것은 卽 發展이다. 故로 肯定에 對하여 否定이 作用하면 卽 否定이 進行하면 第三階段으로서 새 事物이 出現되는 것이니 그것을 否定의 否定이라 한다. 그것은 알어듯기 쉽게 하기 위해서 鷄卵의 例를 들어서 說明하여보자.

『鷄卵그것은 肯定의 一物이다. 그런데 그것은 生長하여 生命이 되니 그 內容을 漸々食盡하는(卽 否定하는)剪芽를 包藏하고잇다. 그러나 如斯한 否定은 單純한 破壞와 絶滅은 아니오. 反對로 그 剪芽는 한 生物로 進化하는 結果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否定이 完成되면 병아리는 卵殼을 깨트린다. 이것은 否定의 否定이니 그곳에는 鷄卵보다 高級인 有機物이 생긴 것이다』

『모든 有限은 그것에 附屬되어잇는 內在的 矛盾자문에『揚棄』되고, 變化하고 또 自體의 矛盾으로 옮겨진다. 絶對로 永遠으로 確固不變하는 것은 하나도 업다. 모든 것은 變動하고 推移하고 또 內在的 原因에 基因하여……自體의 矛盾에 轉化한다. 이것이 헤-겔이 말한 것과 가치 有限의 辨證法이다』(프렉하노프)

이것을 形而上學과 比較하면 『形而上學은 個々の 發展契機 또는 局面을 固定하여 一定의 狀態를 그 『實在』에 잇서서 그 自己自身과의 『同一性』(A=A, 同一의法則) 에잇서서나 觀察한다. 辨證論者는 事物의 一定한 狀態에 잇서서 新狀態를 準備하고 또 그리하여 既成의 一定한 狀態의 否定이 되는 契機를 본다. 形而上學論者는 事物 또는 狀態를 그 抽象的 瓜立에 잇서서 把握한다. 辨證論者는 그것을 그 相互의 內的 連絡에 잇서서 矛盾된 決定을 含有한 具體的 統一에 잇서서 把握한다.

形而上學論者는 世界에 向하여 요슈아와 가치 停止하라고 부르짖고 그리하여 有限을 無限으로, 相對를 絶對로, 時間을 永遠으로 變한다. 辨證論者는 問題가 事物의 既成狀態에 關한 限에 잇서서 勿論絶對的 理智的 決定의 『相對的 正當』을 承認하지마는 그러나 世界에는 何等의 絶對로 既成되어 不變하는 것이 업는 限에 잇서서 또 乍러서 問題가 過程에 運動에 關한 限에 잇서서 形而上學的 方法은 辨證의 見地로부터 보아서 有善하다』(데쵸-린)

그리고 辨證法에 잇서서는 다음과 가튼 點이 高調된다. 從來로 一般人은 모든 事物의 生起 消滅의 過程을 漸次的 發展으로써 說明하여 『自然은 飛躍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지마는 辨證法은 主張하여 가라대 『一般으로 存在의 變化는 한 量의 旣 量으로의 推移일 뿐이 아니라 量的것의 質的것으로의 推移及 그 逆이다. 卽 한化成, 漸次性的의 中斷, 既存의 存在에 對한 質的 變化이다. 例를들면 물(水)은 冷却으로 因하여 漸次로 凝固하는 것이 아니니 卽 먼저 湖狀으로 되어 漸次로 얼음이라는 凝固體가 되는 것이 아니니 그것이 벌써 水點에 達한새에도 그것을 靜止狀態에 두면 아즉 充分히 流動性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얼음으로 凝固하는 것은 飛躍的이다.(헤-겔)

上述한것을 要約하면

『一, 一切의 有限의 것은 그 自身을 揚棄하는 그 反對物에 推移하는 것이다. 이 推移는 一切現象의 固有性質의 도움에 依하여 行하여 지나니 卽 一切의 現象은 그 反對物을 產出하는 諸力을 包藏하고 있다.

二, 一定한 內容의 漸次的 量的 變化는 드디어 質的 差異로 變한다. 이 變化의 契機는 飛躍, 漸次性的의 中斷의 契機이다』(프랙하노프)

이것이 辨證法의 重要한 特徵이다.